

나주시, '시민 건의 직접 청취'... 직소상담실 운영

'소통채널 확대' 2023년부터 운영 격의 없는 대화로 민원 갈증 해소 나주시청 누리집 홈페이지서 신청 시장 직통 바로문자서비스 편성도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나주시 '직소(直訴)상담실'이 올해도 소통과 공감의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이 2025년 첫 직소민원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소상담실은 윤 시장이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매달 1회 진행 중인 찾아가는 마을좌담회에 이어 시민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직접 주고받는'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직소'란 관리자에 직접 호소한다는 의미다.

각계각층 시민들이 시장과 직접 만나 평소 불편했던 애로사항, 시정 질문, 정

책 제안 등 격의 없는 대화로 묵혀있던 민원 갈증을 해소해 오고 있다.

첫 직소상담에서는 시민 5명이 방문해 '서성벽 공원 정비',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기간 연장',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보상범위 재검토' 등 6건을 건의했다.

6건 가운데 서성벽 공원 정비를 건의한 주민 A씨는 "나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임에도 고사목 발생에 따른 수목 수량 부족 등으로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몇 차례 정비를 건의했음에도 해당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윤 시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사목 제거는 물론 수목 은행 등을 통해 기부 받아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회의를 통해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나주시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직소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 나주시 제공

직소상담은 시청 누리집 화면 우측 '시민 직소상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월 직소 상담실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일정으로 연기해 3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시청사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나주시 시장 직통 '바로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책 제안과 궁금한 점 등 각종 민

원 사항을 문자로 보내면 빠르게 답장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다.

민원인이 시장 직통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010-3147-8898)로 문자를 보내면 요청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3일 이내 답장을 받아볼 수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설 연휴 범죄예방대응 논의 화순경찰, 특별방범대책 마련

화순경찰서는 22일 경찰서 4층 '적벽마루'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과 계·팀장, 지역경찰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회의는 이번 설 연휴가 징검다리 주말과 이어져 최장 9일로 늘어나는 만큼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경찰서 전 기능의 종합적·체계적 방범활동 및 선제적 예방 관리 등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방범 대책이 논의됐다.

경찰은 과거 연휴기간 발생했던 112신고·사건 등의 데이터분석 후 범죄발생 및 인과밀집 예상 지역에 형사·지역경찰 경력을 집중한다.

또 가시적 순찰·거점 활동을 통해 주민 불안감을 차단하고 시장, 마트 등 명절 준비 혼잡상장과 국도·지방도 귀성·귀경길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별 맞춤형 방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명절 가족 간 모임 증가에도 대비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발 우려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전화금융 사기 피해 예방 등에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연휴기간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설맞이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함평군, 내달 6일까지 6곳서

함평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수도권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나선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에서 열리는 지자체 행사와 자매결연 아파트 행사 6곳에 참여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잡곡, 생도라지, 된장, 추어탕, 벌꿀 등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40여종을 선보인다.

함평군은 지역 우수 농산물이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일회성 구매에 그치지 않고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매장인 '함평천지물'과 '남도장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노병철 함평군 농업정책실장은 "직거래장터를 통해 함평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직거래 행사에 적극 참여해 함평군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이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자매결연 아파트 행사 6곳에 참여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 나주시, 2월 28일까지

나주시가 산불 위험 요소인 영농부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주시는 겨울철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마을별로 영농부산물 파쇄 기간을 운영하고 농기계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로 이동장 등 마을 대표가 일제히 파쇄의 날을 정해 최소 3일 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 예약하면 영농부산물 종류별 파쇄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형식이다.

시는 왕곡면(동수동) 분점을 비롯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6곳(금천·봉화·공산·문평·노안·남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신청은 가까운 사업소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농업인들이 잔가지, 콩대와 같은 영농부산물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쇄 농기계를 무상 임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곡성군, 마을 주치의 제도 운영

의료진 가정방문 등

곡성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40.35%를 차지한 곡성군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진이 가정방문해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의사의 판단하에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자를 선정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진찰 및 건강상담을 통해 약물을 처방, 복용지도 등을 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월 3일부터... 30만원 지급

화순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공요금 지원비를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내수 침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민

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2024년 12월 16일 기준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부가

세는 추진 인력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 및 발굴을 마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켰으며 꾸준한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관계자는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2월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061-373-707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장성군, 농가 경영 정상화 지원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 전 기종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20년 3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인건비, 농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발농업 위주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해에만 2억여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수상 실적으로도 이어져 지난해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6년째 접어든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은 이제 영농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영농비용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